

경북지역 대학생의 음주행동 실태 및 음주 문제 예방 프로그램 요구도 분석

안지희¹ · 김효정² · 김미라^{3,†}

¹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²인제대학교 생활상담복지학부 · 인간환경복지연구소,

³경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 장수생활과학연구소

Analysis of Drinking Behaviors and Need for Programs to Prevent Drinking Problems of University Students in Gyeongbuk Region

Ji Hee An¹, Hyochung Kim² and Meera Kim^{3,†}

¹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702-701, Korea

²Dept. of Human Counseling and Welfare, The Institute of Human Environmental Welfare, Inje University, Gimhae 621-749, Korea

³Dept.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Center for Beautiful Ag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702-701,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drinking behaviors and need for programs to prevent drinking problems for university students. Data were obtained from 355 university students in Gyeongbuk region through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Data were analyzed by SPSS Windows V.21.0. To describe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frequency distributions were used. In addition, *t*-test,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were conducted. For 'how many times do you drink a month?', 70.4%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ey drank '1~5 times a month'. Additionally, for 'how much alcohol do you drink?', 54.1%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ey drank 'appropriately'. The main motive for drinking was to promote friendship or celebrate an anniversary such as a birthday, and 44.8% of respondents started drinking from high school days. Many respondents took meals before drinking, and smokers smoked more while drinking. Intention to participate in education or programs related to desirable drinking was low compared to their necessity. The level of information on 'health problems caused by excessive drinking' was highest among information needs related to drinking.

Key words : Drinking behavior, need for prevention programs, university students

서 론

인류가 만든 최초의 가공음료인 술은 심리적으로 긴장감을 해소시키고, 사회적으로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며, 의학적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신체적 건강유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Kim MJ 2009, Yang KM *et al* 2004). 그러나 술을 과하게 마실 경우에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어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계 질환, 소화기계 질환, 정신 및 행동장애, 자동차 사고, 폭력 및 범죄사고 등 여러 질병과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Lee SM *et al* 2008, Suk & Yoo 2004). 2012년에 194개 세계보건기구(WHO) 회원 국가들의 음주 추세를 분석한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약 330만 명이 음주와 관련된 원인으로 사망하였고,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망은 남성의 경우 7.6%, 여성의 경우 4.0%로

나타났다(<http://news.donga.com/3/all/20140513/63444788/1>).

2012년 우리나라 국민건강통계자료(Korea Health Statistics 2014)에 따르면, 19세 이상 국민의 연간 음주율(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음주한 비율)은 77.1%, 월간 음주율(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한 비율)은 56.6%로, 성별로는 남자 73.5%, 여자 42.9%이었다. 이러한 높은 음주율은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Jung YH *et al*(2012)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6조 1,200억 원, 음주로 인한 사고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1조 2,492억 원으로, 음주로 인한 질병과 사고로 발생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7조 3,698억 원이었다.

한편, 일부 연구들에 의하면 20대의 음주율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통계자료(Korea Health Statistics 2014)에 의하면, 19~29세의 연간 음주율은 88.4%, 월간 음주율은 66.6%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JH *et al*(2010)의

[†]Corresponding author : Meera Kim, Tel: +82-53-950-6233, Fax: +82-53-950-6229, E-mail: meerak@knu.ac.kr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85.4%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음주를 하고, 71.2%는 폭음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Kim KH *et al* (2011)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50.3%가 1년에 2회, 26.0%가 6개월에 2회 블랙아웃(blackout)을 경험하여 대학생의 폭음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시기는 사회적으로 음주를 처음 인정받는 시기인 만큼 주위에서 권하는 대로, 또는 분위기에 따라 과음하기 쉬우며, 또한 치열한 대학 입시에서 벗어난 학생들이 신입생 환영회, 친구 대면식, 동아리 모임, MT, 취업과 사회진출을 위한 고민 등으로 인해 잦은 술 자리를 갖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시게 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음주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대학생들의 음주 실태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다(Jang SO 2003, Jung HS 2010, Lee WJ 2001, Suk SJ 2002). 그러나 대학생은 성장기로부터 성인으로 성숙되어가는 과도기의 연령으로, 이 시기의 건전한 식생활은 이후의 평생 건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Kim KH 2003)을 고려해볼 때, 대학생의 식습관에 따른 음주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식습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하여 건강한 식습관을 갖도록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학생의 음주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Kim KK *et al* 2012)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ark HS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절주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45.3%만이 교육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Lee EH *et al*(2007)의 연구에서도 절주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접해본 응답자의 15%만이 적절한 음주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보다 효과적인 음주 문제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도 및 요구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식습관에 따른 음주 실태 및 음주 문제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음주 문제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및 조사 기간

본 연구는 경북 지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예비 조사는 2012년 11월 27~28일에 대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본 조사는 예비 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수정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2년 12월 15일부터 2013년 1월 23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

는 음주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에게만 배포하였으며, 설문 대상자가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법을 이용하였다. 총 410부를 배포하여 371부를 회수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16부를 제외한 총 355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조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 연구들(Choi SH 2001, Lee BH 2008, Song JY 2008, Suk SJ 2002)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한 달간 음주 횟수, 주관적 음주량, 주된 음주 동기, 음주 시작 시기, 음주 전 식사 여부, 음주 시 주로 먹는 안주의 종류, 음주 시 흡연 정도, 음주 관련 교육 또는 프로그램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대학 내 음주 관련 상담 서비스 기관이나 제도의 마련에 대한 필요성 인식도, 음주 관련 학칙의 제정 방향에 대한 인식도, 음주 관련 교육 또는 프로그램 참여 의사, 음주 관련 정보에 대한 요구도에 관한 문항, 그리고 조사 대상자의 성별, 학년, 군복무 여부(남학생의 경우), 전공, 흡연 여부, 종교 유무, 거주 형태, 동아리 활동 참가 여부, 월평균 용돈, 음주 관련 특강/교육 참여 여부, 식습관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식습관은 대학지역사회영양학회의 홈페이지(<http://www.dietnet.or.kr>)에서 제공하는 건강한 식습관 평가 문항을 이용하였으며, 1주일 간 섭취 일수가 '0~2일'은 0점, '3~5일'은 0.5점, '6~7일'은 1점을 부여하여 총 10점 만점으로 하였고, 총 점수가 0~4점은 '불량', 4.5~6점은 '보통', 6.5~10점은 '양호'로 분류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dow V.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각 문항에 대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각 문항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Duncan의 다중범위분석을 실시하였다. 음주 관련 정보에 대한 요구도 문항의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구한 결과, 0.92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결과 및 고찰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조사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54.9%, 여학생이 45.1%이었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 25.4%, 2학년 22.3%, 3학년 32.1%,

4학년 20.3%이었다. 남학생의 경우, 군복부 여부에 대해 61.5%가 군필자이었다. 전공별로는 식품영양보건 관련 계열이 43.4%이었으며, 흡연자는 30.4%, 종교가 있는 경우가 47.3%이었다. 거주형태별로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대학생이 46.8%, 기숙사 생활을 하는 대학생이 26.5%, 기타(하숙, 자취 등) 형태가 26.8%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들 중 동아리에 가입한 경우는 39.4%이었으며, 월평균 용돈은 20만 원 초과~30만 원이 3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30만 원 초과~40만 원이 21.4%, 10만 원 초과~20만 원이 18.3%이었다. 응답자의 82.0%가 음주 관련 특강이나 교육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여 음주 관련 교육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식습관은 불량이 70.4%, 보통이 17.2%, 양호가 12.4%로, 대다수의 응답자들의 식습관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음주 행태

1) 한 달간 음주 횟수

조사 대상자의 한 달간 음주 횟수는 Table 2와 같이 '1~5회'가 70.4%로 가장 많았고, '6~10회' 17.2%, '11회 이상' 1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도 유사한 것으로, Suk SJ & Yoo WK(2006)의 연구에서 한 달에 4회 미만 음주하는 학생이 57.4%로 가장 많았고, 일주일에 1~2회가 30.8%, 일주일에 3회 이상이 10.3%이었다. 또한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Jung SK(2010)의 연구에서도 한 달에 4회 미만으로 음주를 하는 학생이 53.4%로 가장 많았고, 주 1~2회가 30.2%, 주 3회 이상이 14.8%, 그리고 매일 음주하는 학생도 1.6%로 나타났으며, Yang KM *et al* (2004)의 연구에서도 한 달에 1~2회가 54.9%, 4~5일에 1회 25.1%, 2~3일에 1회 11.2%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한 달간 음주 횟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 흡연 여부, 동아리 활동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한 달간 음주 횟수가 6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성별로는 남학생이 39.5%로, 여학생 17.6%보다 높았으며($p<0.001$), 흡연 여부에 따라서는 비흡연자 20.6%에 비해 흡연자가 50.0%로 높았고($p<0.001$), 동아리 활동 여부에서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가 38.5%로,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의 23.8%에 비해 높았다($p<0.05$). Suk SJ & Yoo WK (2004), Yang KM *et al*(2004), Jang JH & Yang KM(2003), Rhim KH *et al*(2004), Chun SS *et al*(2001)의 연구에서도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음주 빈도가 높았고, Chun SS *et al*(2001), Suk SJ & Yoo WK(2004)의 연구에서도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이 동아리 미가입 학생보다 음주 횟수가 잦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동아리 활동 여부에 따라

음주 횟수의 차이가 나타난 결과는 동아리 활동 후에 사고나 뒷풀이의 형식으로 술을 마시는 기회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N=355)

Variable	Category	N	%
Gender	Male	195	54.9
	Female	160	45.1
Grade	Freshman	90	25.4
	Sophomore	79	22.3
	Junior	114	32.1
	Senior	72	20.3
Military service ¹⁾	Completed	120	61.5
	Uncompleted	75	38.5
Major	Major in food, nutrition, or health	154	43.4
	Others	201	56.6
Smoking status	Smoking	108	30.4
	Non-smoking	247	69.6
Religion	Yes	168	47.3
	No	187	52.7
Dwelling status	Living with parent(s)	166	46.8
	Dormitory	94	26.5
	Others	95	26.8
Circle activity	Yes	140	39.4
	No	215	60.6
Monthly allowance (won)	Below 100,000	36	10.1
	Over 100,000~200,000	65	18.3
	Over 200,000~300,000	123	34.6
	Over 300,000~400,000	76	21.4
	Over 400,000	55	15.5
Participation in special lectures or education	Yes	64	18.0
	No	291	82.0
Dietary habit	Poor	250	70.4
	Fair	61	17.2
	Good	44	12.4

¹⁾ Only males were included(N=195).

Table 2. Drinking frequency per month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N(%)

Variable	Category	1~5 times	6~10 times	Over 11 times	Total	χ^2 value
Gender	Male	118(60.5)	43(22.1)	34(17.4)	195(100.0)	20.87***
	Female	132(82.5)	18(11.3)	10(6.3)	160(100.0)	
Smoking status	Smoking	54(50.0)	32(29.6)	22(20.4)	108(100.0)	31.16***
	Non-smoking	196(79.4)	29(11.7)	22(8.9)	247(100.0)	
Circle activity	Yes	86(61.4)	31(22.1)	23(16.4)	140(100.0)	9.00*
	No	164(76.3)	30(14.0)	21(9.8)	215(100.0)	
Total		250(70.4)	61(17.2)	44(12.4)	355(100.0)	

* $p<0.05$, *** $p<0.001$ **2) 주관적 음주량**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음주량은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적당히 마신다고 생각한다’ 45.1%, ‘조금 마신다고 생각한다’ 41.4%, ‘많이 마신다고 생각한다’ 13.5% 순으로 나타나서, 응답자 스스로는 대체로 과음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주관적인 음주량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 군복무 여부, 전공, 흡연 여부, 거주형태, 동아리 활동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적당히 마신

다고 생각한다’의 응답 비율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가장 많았으나, ‘많이 마신다고 생각한다’ 응답 비율은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높았다($p<0.01$). 그리고 군복무 여부에 따라서는 군필자는 ‘적당히 마신다고 생각한다’의 비율이 45.0%로 가장 높았으나, 미필자는 ‘조금 마신다고 생각한다’의 비율이 42.7%로 가장 높았다($p<0.05$). 또한 식품영양보건 관련 계열의 학생들보다 비식품영양보건 관련 계열의 학생들이($p<0.001$),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가 ‘더 많이 마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거주형태별로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

Table 3. Subjective drinking quantity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N(%)

Variable	Category	Drink a little	Drink appropriately	Drink much	Total	χ^2 value
Gender	Male	76(39.0)	83(42.6)	36(18.5)	195(100.0)	9.03**
	Female	71(44.4)	77(48.1)	12(7.5)	160(100.0)	
Military service ¹⁾	Completed	43(35.8)	54(45.0)	23(19.2)	120(100.0)	9.99*
	Uncompleted	32(42.7)	30(40.0)	13(17.3)	75(100.0)	
Major	Major in food, nutrition or health	77(50.0)	66(42.9)	11(7.1)	154(100.0)	13.32***
	Others	70(34.8)	94(46.8)	37(18.4)	201(100.0)	
Smoking status	Smoking	32(29.6)	48(44.4)	28(25.9)	108(100.0)	22.88***
	Non-smoking	115(46.6)	112(45.3)	20(8.1)	247(100.0)	
Dwelling status	Living with parent(s)	72(43.4)	80(48.2)	14(8.4)	166(100.0)	21.88***
	Dormitory	44(46.8)	42(44.7)	8(8.5)	94(100.0)	
	Others	31(32.6)	38(40.0)	26(27.4)	95(100.0)	
Circle activity	Yes	48(34.3)	61(43.6)	31(22.1)	140(100.0)	15.66***
	No	99(46.0)	99(46.0)	17(7.9)	215(100.0)	
Total		147(41.4)	160(45.1)	48(13.5)	355(100.0)	

* $p<0.05$, ** $p<0.01$, *** $p<0.001$ ¹⁾ Only males were included(N=195).

하거나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에 비해 기타(하숙, 자취 등)의 경우 ‘많이 마신다고 생각한다’의 응답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는데($p<0.001$), 이는 하숙이나 자취하는 학생들의 경우, 비교적 부모의 간섭이나 학교의 통제를 덜 받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p<0.001$), 술을 많이 마신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주된 음주 동기

조사 대상자의 주된 음주 동기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80.3%가 ‘친구들과의 친목 및 생일 등 기념일 축하’를 위하여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Table 4), 이는 Kim JS *et al*(1995)의 연구에서 ‘모임이나 교제 때문’과 ‘생일이나 기념일’에 술을 많이 마신다고 한 결과 및 Suk SJ & Yoo WK(2004)의 연구에서 72.0%가 사교 상 인간관계의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 그리고 Lim KH *et al*(2004)의 연구에서 음주 동기를 친목 및 대화 35.8%, 각종 모임 및 행사 30.9%라고 응답한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또한 1999년과 2009년의 남자 대학생의 음주 실태를 비교한 Kim JG & Kim JS(2010)의 연구에서도 1999년에는 응답자의 86.6%, 2009년에는 86.5%가 주된 음주 동기를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나 행사, 모임 참석을 위해서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볼 때, 우리나라 대학생들에서는 음주가 사교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어, 사교를 위해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잦은 음주와 과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 앞으로 대학생활에서 술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풍토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주된 음주 동기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동아리 활동 여부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과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 모두 주된 음주 동기가 ‘친구들과의 친목 및 생일 등 기념일 축하’라고 하였지만,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 때문에 주로 음주를 하게 된다는 비율이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보다 높았다($p<0.001$).

4) 음주 시작 시기

조사 대상자의 음주 시작 시기를 살펴보면, ‘고등학생’ 때 음주를 시작한 경우가 44.8%이었으며, ‘중학생 때’에 음주를 시작한 경우도 22.8%나 되었다(Table 5). 즉,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음주를 할 수 있는 연령이 만 19세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응답자의 약 2/3가 대학교 입학 전에 음주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실시한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2012)’에 따르면 중고생의 ‘음주 경험률’은 47.0%이었으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68.9%이었고, 중학교 1학년 학생의 21.0%도 ‘중학교 입학 전 음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30203022448&subctg1=&subctg2=&OutUrl=Zum>). 또한 다른 선행 연구들(Jung HS 2010, Suk SJ & Yoo WK 2004, Yang KM *et al* 2004)의 결과에서도 음주를 최초로 경험한 시기가 고등학교 때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종합해서 볼 때 청소년들의 음주 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어린 나이에 음주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음주에 대한 교육을 중고등학교 때부터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서울시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 대형마트 64.6%, 편의점 55.2%, 기업형 슈퍼마켓(SSM) 43.5%(<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600389>)로, 법 규정과 달리 실제로는 청소년들이 술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환경도 문제가 되므로, 청소년들의 주류 판매 금지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음주 시작 시기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p<0.01$), 군복무 여부에서는 군필자보다 미필자가($p<0.01$), 흡연 여부에서는 비흡연자보다 흡연자가($p<0.001$), 거주형태별로는 기타(하숙, 자취 등)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거나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보다($p<0.05$), 월평균 용돈이 많을수록($p<0.05$) 더 이른 시

Table 4. Main motive for drinking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N(%)

Variable	Category	Friendship or celebrations of an anniversary such as a birthday	Student council or circle activity	Others (refreshment or stress relief)	Total	χ^2 value
Circle activity	Yes	103(73.6)	21(15.0)	16(11.4)	140(100.0)	16.16***
	No	182(84.7)	7(3.3)	26(12.1)	215(100.0)	
Total		285(80.3)	28(7.9)	42(11.8)	355(100.0)	

*** $p<0.001$

Table 5. Beginning time of drinking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Variable	Category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Total	χ^2 value	N(%)
Gender	Male	55(28.2)	91(46.7)	49(25.1)	195(100.0)	12.90**	
	Female	26(16.3)	68(42.5)	66(41.3)	160(100.0)		
Military service ¹⁾	Completed	29(24.2)	57(47.5)	34(28.3)	120(100.0)	14.83**	
	Uncompleted	26(34.7)	33(44.0)	16(21.3)	75(100.0)		
Smoking status	Smoking	45(41.7)	47(43.5)	16(14.8)	108(100.0)	39.04***	
	Non-smoking	36(14.6)	112(45.3)	99(40.1)	247(100.0)		
Dwelling status	Living with parent(s)	28(16.9)	79(47.6)	59(35.5)	166(100.0)	9.86*	
	Dormitory	22(23.4)	39(41.5)	33(35.1)	94(100.0)		
	Others	31(32.6)	41(43.2)	23(24.2)	95(100.0)		
Monthly allowance (won)	Below 100,000	4(11.1)	19(52.8)	13(36.1)	36(100.0)	23.03*	
	Over 100,000 ~ 200,000	9(13.8)	24(36.9)	32(49.2)	65(100.0)		
	Over 200,000 ~ 300,000	25(20.3)	59(48.0)	39(31.7)	123(100.0)		
	Over 300,000 ~ 400,000	22(28.9)	33(43.4)	21(27.6)	76(100.0)		
	Over 400,000	21(38.2)	24(43.6)	10(18.2)	55(100.0)		
Total		81(22.8)	159(44.8)	115(32.4)	355(100.0)		

* $p < 0.05$, ** $p < 0.01$, *** $p < 0.001$ ¹⁾ Only males were included(N=195).

기부터 음주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음주 전 식사 여부

음주 전 식사 여부를 살펴보면, '음주 전 꼭 먹는다'가 34.1%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으며, '가끔 먹는다' 29.0%, '자주 먹는다' 24.2%, '거의 먹지 않는다' 8.5%, '전혀 먹지 않는다' 4.2%의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음주 전 식사를 잘 챙겨 먹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6). 이는 Jang JH & Yang KM(2003)의 연구에서 응답자의 59.8%가 음주 전에 식사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은 비율이었다. 마신 술의 알코올이 간에 이르기 전에 위에서 대사되는 정도는 공복 시 감소되므로, 빈 속에 마신 술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더욱 증가시키고, 위장 내벽에 미치는 알코올의 자극도 커지게 하므로 (Choi HM *et al* 2006), 음주 전에는 공복을 피하고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음주 전 식사에 대한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알려주어 이를 습관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음주 전 식사 여부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음주 전 식사를 꼭 한다'는 비흡연자가 흡연자보다 응답 비율이 많았으며 ($p < 0.05$), 거주형태별로는 자가, 기숙사, 기타(하숙, 자취, 친척집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p < 0.05$). 또한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p < 0.05$), 월평균 용돈이 10만 원 초과~20만 원인 경우($p < 0.01$) '음주 전 식사를 꼭 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6) 음주 시 주로 먹는 안주의 종류

조사 대상자가 음주 시 주로 먹는 안주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면 Table 7과 같이, '국이나 찌개 요리(39.2%)', '볶음이나 튀김요리(33.8%)'를 주로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과일, 채소 등 생식품(10.4%)'과 '육류나 생선구이(9.3%)', '기타(마른안주, 스낵 등)(4.8%)' 순이었다. 한편, 응답자의 2.5%는 안주를 먹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Jang JH & Yang KM(2003)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이 음주 시 안주를 먹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92.0%이었고, 선호하는 안주로 찌개류가 43.6%, 육류 18.5%, 마른안주 14.2%, 채소류 12.0%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국이나 찌개 요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JG & Kim JS(2010)의 연구에 의하면, 1999년 남자 대학생의 음주 시 가장 선호하는 안주 종류가 국/탕/찌개, 마른안주 및 과자/스낵류, 찜/조림/무침 및 볶음/튀김/전, 구이, 과일·채소류 순이었으나, 2009년에는 국/탕/찌개 및 구이, 볶음/튀김/전, 찜/조림/무침 및 과일·채소류, 마른안주 및 과자/스낵류 순으로, 1999년에

Table 6. Meal before drinking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N(%)

Variable	Category	Never	Little	Sometimes	Frequently	Always	Total	χ^2 value
Smoking status	Smoking	8(7.4)	14(13.0)	34(31.5)	22(20.4)	30(27.8)	108(100.0)	10.55*
	Non-smoking	7(2.8)	16(6.5)	69(27.9)	64(25.9)	91(36.8)	247(100.0)	
Dwelling status	Living with parent(s)	7(4.2)	13(7.8)	46(27.7)	34(20.5)	66(39.8)	166(100.0)	16.65*
	Dormitory	1(1.1)	6(6.4)	33(35.1)	21(22.3)	33(35.1)	94(100.0)	
	Others	7(7.4)	11(11.6)	24(25.3)	31(32.6)	22(23.2)	95(100.0)	
Circle activity	Yes	10(7.1)	17(12.1)	45(32.1)	28(20.0)	40(28.6)	140(100.0)	12.93*
	No	5(2.3)	13(6.0)	58(27.0)	58(27.0)	81(37.7)	215(100.0)	
Monthly allowance (won)	Below 100,000	3(8.3)	3(8.3)	12(33.3)	8(22.2)	10(27.8)	36(100.0)	31.08**
	Over 100,000~200,000	1(1.5)	4(6.2)	13(20.0)	18(27.7)	29(44.6)	65(100.0)	
	Over 200,000~300,000	3(2.4)	7(5.7)	44(35.8)	31(25.2)	38(30.9)	123(100.0)	
	Over 300,000~400,000	2(2.6)	5(6.6)	20(26.3)	21(27.6)	28(36.8)	76(100.0)	
	Over 400,000	6(10.9)	11(20.0)	14(25.5)	8(14.5)	16(29.1)	55(100.0)	
Total		15(4.2)	30(8.5)	103(29.0)	86(24.2)	121(34.1)	355(100.0)	

* $p<0.05$, ** $p<0.01$

비해 2009년에는 마른안주 및 과자/스낵류 선호도가 낮아진 반면, 볶음/튀김/전 및 과일·채소류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들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대학생들은 음주 시 국, 탕, 찌개를 많이 선호하고 있으나, 마른안주는 별로 선호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음주 시 주로 먹는 안주 종류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 월평균 용돈에 따라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p<0.01$), 월평균 용돈이 20만 원 초과~30만 원인 경우에는 ‘볶음이나 튀김요리’를 주로 먹는 안주의 종류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고, 월평균 용돈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와 40만 원 초과인 경우 ‘국이나 찌개요리’를, 월평균 용돈이 30만 원 초과~

40만 원인 경우에는 ‘국이나 찌개요리’, ‘볶음이나 튀김요리’를 주로 먹는 안주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한편, 월평균 용돈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교적 값이 저렴한 ‘과일, 채소 등 생식품’ 및 ‘기타(마른안주, 스낵 등)’를 안주로 섭취하는 비율이 높았다.

7) 음주 시 흡연 정도

조사 대상자 중 흡연을 한다고 응답한 108명을 대상으로 하여 음주 시 흡연 정도를 살펴본 결과, ‘평소보다 많음’이 65.7%로 나타나서 흡연자는 음주를 할 때에 평소보다 흡연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Jeon JA(2010)의

Table 7. Kinds of accompaniment for drinking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N(%)

Variable	Category	Do not eat	Soup or Stew	Stir-fry or deep-fry	Fresh fruits or vegetables	Roasted meat or fish	Others (dried snacks)	Total	χ^2 value
Monthly allowance (won)	Below 100,000	1(2.8)	11(30.6)	8(22.2)	10(27.8)	3(8.3)	3(8.3)	36(100.0)	39.63**
	Over 100,000~200,000	0(0.0)	29(44.6)	23(35.4)	4(6.2)	5(7.7)	4(6.2)	65(100.0)	
	Over 200,000~300,000	6(4.9)	40(32.5)	50(40.7)	14(11.4)	8(6.5)	5(4.1)	123(100.0)	
	Over 300,000~400,000	2(2.6)	29(38.2)	29(38.2)	3(3.9)	11(14.5)	2(2.6)	76(100.0)	
	Over 400,000	0(0.0)	30(54.5)	10(18.2)	6(10.9)	6(10.9)	3(5.5)	55(100.0)	
Total		9(2.5)	139(39.2)	120(33.8)	37(10.4)	33(9.3)	17(4.8)	355(100.0)	

** $p<0.01$

연구 결과에서도 음주 시 흡연량이 평소보다 많다는 응답률이 남자 84.5%, 여자 65.0%로 나타났고, Rhim KH *et al*(2004)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의 88.8%, 여학생의 87.6%가 술을 마시면 흡연량이 증가한다고 응답하여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음주 시 흡연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음주 시 흡연을 하면 입과 목에 남아있던 담배의 발암 물질을 알코올이 녹여 빠르게 흡수시키기 때문에 식도암에 걸릴 확률이 44배나 높아지며, 그 외 구강암, 후두암, 췌장암의 발병도 크게 높인다고 보도되었고(<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5088448>), 미국 브라운 대학 알코올중독 연구소에서도 음주 시 흡연을 하면 숙취가 발생할 확률이 2배 높아진다고 발표하는 등(<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6011432>), 음주 시 흡연에 대한 악영향이 보고되고 있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주 교육을 실시할 때 음주와 흡연을 같이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 대상자의 학년과 음주 관련 특강/교육 참여 여부에 따라 음주 시 흡연 정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는데, 1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음주 시 평소보다 흡연을 많이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p<0.01$), 음주 관련 특강이나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음주 시 흡연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p<0.001$).

3. 음주 관련 교육 및 제도에 대한 인식

1) 음주 관련 교육 또는 프로그램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조사 대상자들이 음주 관련 교육 또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5점 만점에 평균이 3.45점으로 중간을 약간 상회하였다(Table 9). 대구·

경북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ung HS(2010)의 연구 결과, ‘절주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필요함’ 62.3%, ‘매우 필요함’ 12.3%로 나타나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식도 차이를 보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p<0.001$), 다른 학년에 비해 4학년($p<0.001$),

Table 9. Perception about necessity for education or programs related to drinking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Variable	Category	M±S.D. ¹⁾	t/F value
Gender	Male	3.27±1.09	-3.52***
	Female	3.66±1.00	
Grade	Freshman	3.08±1.01 ^c	7.17***
	Sophomore	3.47±1.96 ^b	
	Junior	3.48±1.10 ^b	
	Senior	3.83±1.06 ^a	
Smoking status	Smoking	3.13±1.05	3.46**
	Non-smoking	3.57±1.05	
Participation in special lectures or education	Yes	3.72±0.95	-2.45*
	No	3.39±1.08	
Dietary habit	Poor	3.33±1.02 ^b	4.41*
	Moderate	3.50±1.13 ^b	
	Good	3.83±1.02 ^a	
Total		3.45±1.07	

* $p<0.05$, ** $p<0.01$, *** $p<0.001$

^{a-c} show the results of Duncan's multiple range test.

¹⁾ 1=never, 5=highly.

Table 8. Smoking during drinking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the smoking respondents¹⁾

Variable	Category	Do not smoke during drinking	Less smoking than usual	Same as usual	More smoking than usual	Total	χ^2 value
Grade	Freshman	2(8.0)	0(0.0)	5(20.0)	18(72.0)	25(100.0)	14.69**
	Sophomore	1(2.9)	4(11.4)	8(22.9)	22(62.9)	35(100.0)	
	Junior	1(3.1)	2(6.3)	7(21.9)	22(68.8)	32(100.0)	
	Senior	5(31.3)	0(0.0)	2(12.5)	9(56.3)	16(100.0)	
Participation in special lectures or education	Yes	4(25.0)	3(18.8)	1(6.3)	8(50.0)	16(100.0)	71.19***
	No	5(5.4)	3(3.3)	21(22.8)	63(68.5)	92(100.0)	
Total		9(8.3)	6(5.6)	22(20.4)	71(65.7)	108(100.0)	

** $p<0.01$, *** $p<0.001$

¹⁾ Only smokers were included(N=195).

흡연자보다 비흡연자($p<0.01$), 음주 관련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참석한 적이 없는 경우보다는 있는 경우($p<0.05$), 그리고 식습관이 불량이나 보통인 경우보다 양호한 경우($p<0.05$), 음주 관련 교육이나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더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대학 내 음주 관련 상담 서비스 기관이나 제도의 마련에 대한 필요성 인식도

조사 대상자의 학교 내 음주 관련 상담 서비스 기관이나 제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알아본 결과, 평균은 5점 만점에 3.05점으로 중간 수준이어서 음주 관련 상담 서비스 기관이나 제도의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0). 이는 앞의 결과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음주 교육의 경험이 부족하여 음주 관련 상담이나 제도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음주 관련 상담 서비스 기관이나 제도의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보다

Table 10. Perception about necessity for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or systems for counseling service related to drinking in the campu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Variable	Category	M±S.D. ¹⁾	t/F value
Gender	Male	2.88±1.06	-3.40**
	Female	3.24±0.94	
Military service ²⁾	Completed	3.01±1.07	-2.04*
	Uncompleted	2.69±1.04	
Grade	Freshman	2.74±1.02 ^c	6.57***
	Sophomore	3.06±0.95 ^{bc}	
	Junior	3.02±0.99 ^b	
	Senior	3.44±1.05 ^a	
Smoking status	Smoking	2.81±1.03	2.59*
	Non-smoking	3.13±1.01	
Dietary habit	Poor	2.92±1.02 ^b	5.32**
	Moderate	3.09±1.00 ^b	
	Good	3.46±1.03 ^a	
Total		3.05±1.02	

* $p<0.05$, ** $p<0.01$, *** $p<0.001$

^{a-c} show the results of Duncan's multiple range test.

¹⁾ 1=never, 5=highly.

²⁾ Only males were included(N=195).

여학생이($p<0.01$), 미필자보다 군필자가($p<0.05$), 학년별로는 1, 2, 3학년에 비해 4학년이($p<0.001$), 흡연자보다 비흡연자가($p<0.05$), 그리고 식습관이 불량이나 보통인 경우보다 양호한 경우($p<0.01$), 음주 관련 상담 서비스 기관이나 제도의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2).

3) 음주 관련 학칙의 제정 방향에 대한 인식도

조사 대상자의 음주 관련 학칙의 제정 방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Table 11과 같이 ‘학칙으로 제정할 필요 없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0.6%로 가장 높았으며, ‘기숙사 등 일부 장소에서 음주 금지’의 응답이 30.1%, ‘신입생 환영회 등 공식적인 학생모임에서 음주 금지’가 18.3%, ‘학교 내 주류 반입 금지 및 음주 금지’ 8.2%, ‘축제 등 행사 시 주류 판매 금지 및 음주 금지’ 2.8% 순으로 다소 엄격한 학칙의 제정에 동의하는 비율은 낮았다. 인천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In SH(2010)의 연구 결과에서도 기숙사에서 음주를 금지하는데 찬성하는 의견은 70.5%이었으나, 캠퍼스 구내로 술을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에는 77.0%가 반대하였고, 또한 학생회나 동아리 모임에서 음주를 단속하는 것에는 84.0%가 반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보다 대학생들이 캠퍼스 내의 주류 반입이나 학생활동과 관련된 행사에서의 음주 제한에 대한 반대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학년별로는 4학년이 다른 학년보다 학칙으로 제정할 필요가 없음에 대한 응답 비율이 낮은 반면, 기숙사 등 일정 장소에서의 음주 금지와 신입생 환영회 등 공식적인 학생모임에서 음주 금지에 대한 응답 비율이 더 높았고($p<0.05$), 거주형태별로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다른 거주형태에 비해($p<0.05$) 음주 관련 학칙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한 달간 음주 횟수가 11회 이상인 경우($p<0.05$), 식습관이 불량한 경우($p<0.001$) 학칙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4) 음주 관련 교육 또는 프로그램 참여 의사

조사 대상자의 음주 관련 교육 또는 프로그램의 참여 의사를 알아본 결과, 5점 만점에 평균이 2.65점으로 대체로 낮았다(Table 12). 이는 앞에서 살펴본 음주 관련 교육 또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의 평균인 3.45점보다 낮아, 음주 교육이나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비해 본인 스스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는 저조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월평균 용돈이 10만 원 이하에 비해 20만 원 초과인 경우($p<0.05$), 그리고 음주 관련 특강/교육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경우, 음

Table 11. Perception about establishment of student regulations related to drinking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N(%)

Variable	Category	Not necessary for student regulations related to drinking	Prohibition of drinking at dormitory and some places in campus	Prohibition of drinking at welcome a party for freshmen or official student meeting	Prohibition of drinking in campus	Prohibition of drinking and selling liquor at festival	Total	χ^2 value
Grade	Freshman	44(48.9)	26(28.9)	12(13.3)	6(6.7)	2(2.2)	90(100.0)	21.16*
	Sophomore	35(44.3)	19(24.1)	16(20.3)	8(10.1)	1(1.3)	79(100.0)	
	Junior	51(44.7)	34(29.8)	17(14.9)	8(7.0)	4(3.5)	114(100.0)	
	Senior	14(19.4)	28(38.9)	20(27.8)	7(9.7)	3(4.2)	72(100.0)	
Dwelling status	Living with parent(s)	59(35.5)	45(27.1)	38(22.9)	19(11.4)	5(3.0)	166(100.0)	18.81*
	Dormitory	47(50.0)	33(35.1)	7(7.4)	6(6.4)	1(1.1)	94(100.0)	
	Others	38(40.0)	29(30.5)	20(21.1)	4(4.2)	4(4.2)	95(100.0)	
Drinking frequency per month	1~5 times	97(38.8)	79(31.6)	42(16.8)	24(9.6)	8(3.2)	250(100.0)	15.49*
	6~10 times	21(34.4)	22(36.1)	12(19.7)	5(8.2)	1(1.6)	61(100.0)	
	Over 11 times	26(59.1)	6(13.6)	11(25.0)	0(0.0)	1(2.3)	44(100.0)	
Dietary habit	Poor	93(47.4)	68(34.7)	22(11.2)	10(5.1)	3(1.5)	196(100.0)	33.45***
	Moderate	38(33.6)	28(24.8)	29(25.7)	15(13.3)	3(2.7)	113(100.0)	
	Good	13(28.3)	11(23.9)	14(30.4)	4(8.7)	4(8.7)	46(100.0)	
Total		144(40.6)	107(30.1)	65(18.3)	29(8.2)	10(2.8)	355(100.0)	

* $p<0.05$, *** $p<0.001$

Table 12. Intention to participate in educations or programs related to drinking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Variable	Category	M±S.D. ¹⁾	t/F value
Monthly allowance (won)	Below 100,000	2.28±1.00 ^b	2.79*
	Over 100,000~200,000	2.74±1.02 ^{ab}	
	Over 200,000~300,000	2.75±1.01 ^a	
	Over 300,000~400,000	2.76±0.94 ^a	
	Over 400,000	2.40±1.01 ^a	
Participation in special lectures or education	Yes	2.92±0.98	-2.42*
	No	2.59±1.10	
Total		2.65±1.01	

* $p<0.05$

^{a,b} show the results of Duncan's multiple range test.

¹⁾ 1=never, 5=highly.

주 관련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참여 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p<0.05$).

4. 음주 관련 정보에 대한 요구도

조사 대상자의 음주 관련 정보에 대한 요구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6개 문항에 대해 질의한 결과, Fig. 1과 같이 ‘과음을 할 경우 어떤 건강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보 요구도가 5점 만점에 3.28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음주가 조사 대상자 자신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외 ‘건전한 음주 문화에 관한 내용’은 3.26점, ‘알코올 중독을 어떻게 식별하는지’는 3.06점,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음주 실태’는 3.03점이었고, ‘대학의 음주 관련 학칙 내용’은 2.89점, ‘음주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는 2.83점으로 학칙이나 음주 관련 상담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정보 요구도는 낮게 나타났다. 특히 ‘과음을 할 경우 어떤 건강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보 요구도가 높다는 것은 대학생들이 과음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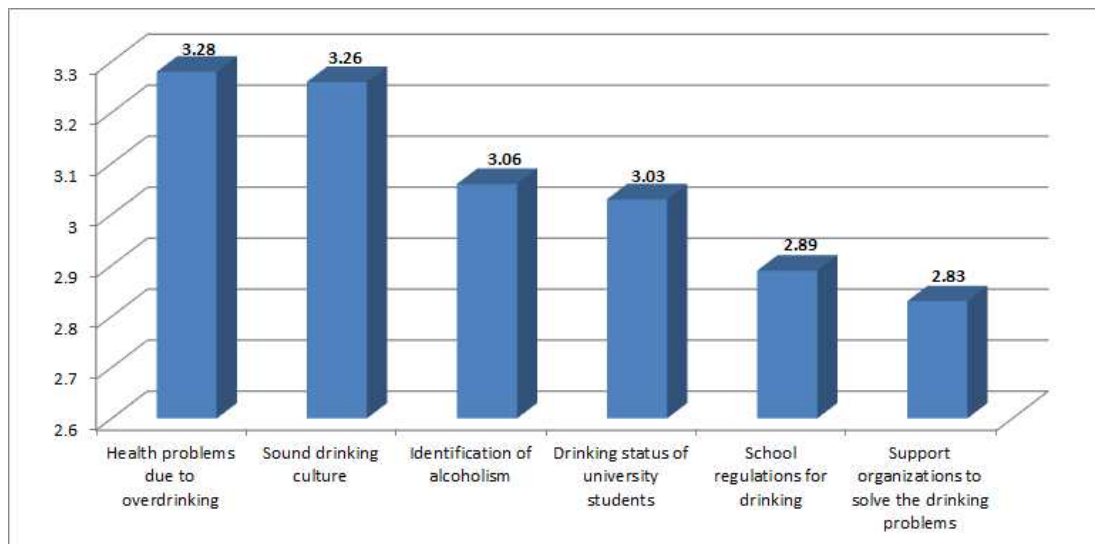


Fig. 1. Information need related to drinking.

것으로, 이에 대한 지식을 대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시사되었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경북지역 대학생 355명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식습관에 따른 음주 실태 및 음주 문제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살펴보았다. 조사 대상자의 한 달간 음주 횟수는 ‘1~5회’가 70.4%로 가장 많았고, 주관적 음주량은 ‘적당히 마신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45.1%, ‘조금 마신다고 생각한다’ 41.4%로 응답자 스스로는 대체로 과음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주된 음주 동기는 ‘친구들과의 친목 및 생일 등 기념일 축하’가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 때 음주를 시작한 경우가 44.8%로 가장 높았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음주 전 식사를 잘 챙겨 먹는 것으로 나타났고, 흡연자의 경우 음주를 할 때에 평소보다 더 많이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 대상자들의 음주 관련 교육 또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5점 만점에 평균이 3.45점으로 중간을 조금 상회하였고, 학교 내 음주 관련 상담 서비스 기관이나 제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은 5점 만점에 3.05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음주 관련 상담 서비스 기관이나 제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음주 관련 학칙의 제정 방향에 대한 인식도에 있어서는 다소 엄격한 학칙의 제정에 동의하는 비율은 낮았다. 또한 음주 관련 교육 또는 프로그램의 참여 의사는 5점 만점에 평균이 2.65점으로 대체로 낮았다. 음주 관련 정보에 대한 요구도에서는 ‘과음을 할 경우 어떤 건강 문제가 발생하는지’, ‘건전한 음주 문화에 관한 내용’, ‘알코올 중

독을 어떻게 식별하는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조사 대상자들의 음주 관련 교육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경험이 저조하였고, 음주 관련 교육 또는 프로그램의 참여 의사도 낮게 나타났는데, 대학생들의 음주와 관련된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대학생들에게 음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와 관련된 교육 또는 프로그램의 참여를 유도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학교 내 음주 관련 상담 서비스 기관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대학생들의 음주율이 높고, 음주로 인한 건강과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학생들이 음주 문제를 상담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적 기관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건복지부도 캠퍼스 내의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캠퍼스 내 음주 금지 관련 학칙 제정이 논란이 되고 있으나, 대학생들의 과도한 음주로 인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대학들이 많아지고 있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면 대학생들은 학교 내 음주를 학칙으로 제한하는데 반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음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학칙 제정에 대해 학교와 학생 간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칙으로 규제하는 것만으로 대학생의 과도한 음주와 문제 발생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으므로, 학생들의 자율적인 절주 및 음주문화에 대한 스스로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과음으로 인한 건강 문제, 건전한 음주 문화 등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음주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대학생들

의 바람직한 음주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Choi HM, Kim JH, Lee JH, Kim CI, Song KH, Jang, KJ, Min HS, Lim KS, Lee HM, Kim KW, Kim HS, Yoon EY (2006) Nutrition and Health. Lifescience Publishing Co, Seoul. p 152.
- Choi SH (2001) Study on drinking behavior and related factors among white collar workers in Seoul. *M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pp 86-91.
- Chun SS, Lee JY, Lee YP, Park JS (2001) Development of prevention programs for problem drinking in the university. *Journal of Korean Alcohol Science* 2(1): 67-114.
- In SH (2010) A study on the drinking behaviour and the prevention of drinking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A case study of university A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MS Thesis* Inha University, Incheon. pp 37-39.
- Jang JH, Yang KM (2003) A study on drinking and dietary habits among university students with obesity indexed residing in Kyungsan a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9(2): 214-236.
- Jang SO (2003) Drinking behaviors of university students in Daegu.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s* 22(1): 109-123.
- Jeon JA (2010) A study on dietary behavior and gender difference analysis under drinking of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M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pp 58-60.
- Jung HS (2010) Drinking behavior and drinking culture of college freshmen. *MS Thesis* Daegu Haany University, Gyeongsan. pp 8-10.
- Jung SK (2010) The influence of Korean drinking culture and perceived attitude toward alcohol on risky drinking behavior among university students. *J of Korean Alcohol Science* 7(2): 1-16.
- Jung YH, Ko SJ, Choi EJ, Choi YC, Kim EJ (2012) Socioeconomic cost of alcohol and cost-effectiveness of interventions to reduce alcohol-related harm.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m JG, Kim JS (2010) Alcohol consumption and drink-related behavior of male university students in Daegu: A comparison of 1999 and 2009.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9(3): 577-588.
- Kim JS, An SS, Kim IS (1995) The drinking life of youngsters aged between 20 and 30.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4(1): 113-122.
- Kim KH (2003) A study of the dietary habits, the nutritional knowledge and the consumption patterns of convenience foods of university students in the Gwangju area. *Korean J Community Nutr* 8(2): 181-191.
- Kim KH, Kim YH, Roh SG, Kim JH (2011) Drinking culture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2(11): 4932-4939.
- Kim KK, JeKarl J, Lee KI, Park JE (2012) Effects of policy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on drinking problems among university students. *Korean J Health Educ Promot* 29(6): 83-91.
- Kim MJ (2009) The effect of personal value on drinking motive: Focus on undergraduate student drinkers. *Korean J Food Culture* 24(4): 376-384.
- Korea Health Statistics 2012 (2014)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 Lee BH (2008) The effects of alcohol control policy on alcohol-related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MS Thesis* Sahmyook University, Seoul. pp 54-60.
- Lee EH, Kim HK, Kwon EJ, Kim M, Cho MJ, Choi EH (2007)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 of moderation in drink for university students. *The 32nd Health Science Conference Proceedings*, pp 20-23.
- Lee JH, Jekarl J, Kim DH (2010) National survey on drinking behavior amo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Alcohol Research Foundation.
- Lee SM, Chung WJ, Kim IS, Kim HJ, Cho WH, Shin EH, Ahn SH, Han KH, Myoung JI (2008) Socioeconomic costs of alcohol drinking in Korea. *Korean Acad Fam Med* 29(3): 201-212.
- Lee WJ (2001) Drinking patterns of college students. *Health and Social Science* 10(2): 79-95.
- Lim KH, Lee JH, Choi MK, Kim CJ (2004) A study of the correlation between college student's drinking and smoking habits.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es* 30(1): 57-70.
- Park HS, Cho MH, Cho GY, Kim DH (2011) A comparison of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nd mental health between two groups of Korea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 17(1): 110-119.
- Rhim KH, Lee JH, Choi MK, Kim CJ (2004)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college students' drinking and smoking habits.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es* 30(1): 57-70.

- Song JY (2008) Perception of and pattern of alcohol consumption and their effects on health-related behaviors among college students. *MS Thesis* Sangji University, Wonju. pp 89-93.
- Suk SJ (2002) Drinking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in Kyungbuk province. *MS Thesis* Kyungsan University, Gyeongsan. pp 8-28.
- Suk SJ, Yoo WK (2004) Drinking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in Kyungbuk province. *J of Korean Alcohol Science* 5(2): 7-33.
- Yang KM, Park CS, Jang JH (2004) Smoking alcohol consumption and dietary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in the Kyungsan area. *J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2 (6): 55-72.
- <http://news.donga.com/3/all/20140513/63444788/1>. Accessed May 20, 2014.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600389>. Accessed May 25, 2014.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5088448>. Accessed May 28, 2014.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6011432>. Accessed May 28, 2014.
- <http://www.dietnet.or.kr>. Accessed September 15, 2012.
-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30203022448&subctg1=&subctg2=&OutUrl=Zum>. Accessed May 25, 2014.

접 수: 2014년 7월 24일
 최종수정: 2014년 8월 13일
 채 택: 2014년 8월 14일